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수행은 놓아버리는 것

우리는 수행을 잘못 알고 있어요. 달라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수행은 하나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관점을 여기에 두세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전환했을 때 바로 평화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평화예요. 놓아버리는 것을 유일한 관심과 수행으로 삼지 않으면 강렬한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놓아버리는 것만 마음에 두세요. 유일한 수행으로 삼으세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행자에게는 3가지 약속이 있어요.

남은 인생을 수행으로 삼겠다는 것, 중생을 위해 수행하고 회향하겠다는 것, 청정한 본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⑦ 선비차

유배도 견디게 했던 차의 위로

다산 정약용, 강진 유배 시절
백련사 혜장 스님과 차 교유
직접 차밭 가꾸고 제다도 해

산에 들에 연둣빛 차싹이 피어납니다. 햇차가 당도하였습니다. 차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차를 사랑하고 목말라 할까요?

"나를 나이게 하는 벗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책이요, 둘째는 차요, 셋째는 채마밭이라. 차가 없었으면 산중 생활을 어찌 하였을까…"

'법정 스님 강연녹취록'에서 우연히 이 법문을 듣고 무척 공감했습니다. 법정 스님 사진전에서도 스님이 차를 우리는 사진을 보았는데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사랑, 차사랑을 생각하면 200년 전 똑같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벼슬하지마라, 공부할 시간 없다. 멸문한 집안으로 살아남는 길은 독서와 공부, 그것뿐이다."

18년간 해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아내 홍혜완의 사랑은 극진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기념하여 홍혜완은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정약용에게 자신이 결혼할 때 입었던 빛바랜 비단치마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살아생전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애절한 편지와 함께요. 아내의 비단치마를 받아든 정약용은 3년을 고이 간직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부부의 사랑이 진하게 배인 빛바랜 비단치마를 잘라서 두 아들에게 주는 비단책을 엮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비단조각에 정약용이 진심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유명한 하피첩입니다. 하피첩에서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근면검소' 할 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음식은 목숨을 연명하면 되고 옷은 몸을 가리면 된다. 부지런하고 검소해라. 집안에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매사에 절약해야 한다."

의식주는 최대한 간단하게, 남는 시간은 모조리 공부, 이렇게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자녀를 교육했던 정약용도 '차 사랑' 만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요즘 차만 탐하는 사람이 되어
차로도 마시고 약으로도 마십니다
책속에서 차를 찾아 육우의 다경
세 편을 모두 읽었고
병든 숫누에처럼 차를 탐해 노동의
일곱 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아침 꽃잎이 벌어질 때
푸른 하늘에 흰구름 흐를 때
낮잠에서 막 깨어날 때
밝은 달이 계곡 샘물에 비출 때
고운 구슬 흩날리는 작설
화로에 끓는 자줏빛 차싹의 향기
갓 떠온 샘물에 알맞은 불
찻자리에 번지는 신선의 맛
깊이 간직했던 용단, 봉병 귀한 차는
이미 바닥나고
땔나무조차 할 수 없는 아픈 몸으로
오직 차를 나누어 주기를 구걸할 뿐
인생의 고해를 건너는 데는 보시가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
명산의 정기를 품고 약초의 으뜸인
차를
목마르게 바라는 마음 저버리지 말고
큰 은혜로 차를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걸명소〉, 잇다 김종미 번역



김종미 대표가 지리산 다원에서 햇차를 만들며 차를 마시는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고 있다.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어 주막집에 방을 얻어 살 때에 백련사 혜장 스님과 교유하며 차를 얻어 마셨습니다. 그 해 겨울에 차가 다 떨어지자 상소문의 형식으로 '차를 구걸하는 글(걸명소)'을 써서 혜장 스님께 보냅니다. "인생의 고해를 건너는 데는 '보시'가 가장 중요하다 하였으니, 나에게 차를 보시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글입니다.

오래 전에 강진 백련사와 다산 초당을 둘러본 적이 있지요. 다산이 유배생활이 조금 느슨해 졌을 때 강진 바닷가 귤동이란 마을 뒷산에 초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귤동 뒷산 너머 멀지 않은 곳에 백련사가 있었기에 혜장 스님과 교유하며 차를 배웠습니다. 정약용과 혜장 스님은 유쾌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해서 문득 찾아오는 바람에 정약용은 처소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에게 차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산의 아들이 아버지를 해배하려고 이른바 로비를 도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안 다산이 아들을 크게 꾸짖으며 또 그러고 다니면 죽을 때까지 너를 안보겠다고 호통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차가 무엇이길래,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다산이, 차를 구걸한다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된 것일까요? '다산(茶山)'이라는 호로 스스로를 지칭하면서요. 다산은 차농사를 짓고 찻잎을 따고 차를 덖고 떡차를 수백 근씩 만들어 스스로도 충족히 마시고 주변에도 선물하였습니다. 다산의 차사랑이 조선의 차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요즘 차의 효능으로 주목받는 영양소가 폴리페놀의 주요성분인 카테킨입니다. 카테킨은 찻잎이 병충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물질입니다. 대자연의 찻잎에는 카테킨이 그득합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찻잎의 카테킨이 몸의 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한다고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입안에 가득 향기를 남기고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갈 때 마음의 맺힌 곳을 풀어주며 토닥토닥 아픔을 감싸 안아 준다구요. 차의 치유가 있었으므로 다산 정약용도 유배생활을 견뎌낼 힘을 얻었던 거라구요. 차가 없었다면 못살았을 거라구요.

〈잇다it茶 대표〉



| 공모주제 - 2021봄, 희망을 담다
- 봄을 맞은 사찰 풍경 및 자연경관 부처님의 가르침
- 나의 사찰과 수행
- 스승 · 도반 · 신도
-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

| 공모대상
- 응모자격 : 스님 및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국내외 스님, 외국인 스님 포함

| 응모기간
- 응모기간 : 3월 30일(화) ~ 5월 30일(일)
- 심사발표 : 2021년 6월 말경

※ 입상자 BTN 홈페이지 / 개별통보

[NOTICE]
-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하고 입상에서 탈락한 작품(파일)은 폐기함.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1인에 대해 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상금이 많은 분야만 시상함.
-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 접수방법
- BTN 홈페이지에서 "폰 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시 상

폰사진 공모전	
BTN 대상 (1명)	상금 2,000,000원
BTN 사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금상 (1명)	상금 500,000원
은상 (2명)	상금 300,000원
동상 (3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당선작은 자사채널(TV, VOD,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예정

| 출품 사진 구격
- 휴대폰 고화질로 촬영한 3Mb이상 10Mb 이하 JPG파일

※ 1일 3점까지 출품가능(출품비 없음)

| 심사 기준
- 내부 심사로 창의성, 스타일, 구성, 이야기, 종교성 등 종합 심사

| 문 의
- 폰사진 공모전 운영팀 / 02-3270-3417

[수상 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